

복구, 청년 아이디어에 지역 담은 로컬 디저트 선보인다



로컬 디저트 무안 참외 파블로바 사진

/광주 복구청 제공

8일 오후 2시 '청년 로컬 디저트 메뉴 개발 클래스' 최종 시식회
무등산·나주 배·무안 참외 등 지역 자원 활용 디저트 5종 공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복구(구청장 신수정)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을 결합한 로컬 디저트를 공개했다.

8일 복구는 이날 오후 2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복구 행복 어울림센터 1층)에서 '2026 청년 로컬 디저트 메뉴 개발 과정 최종 시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자들이 개발한 디저트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평가받아 메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메뉴는 ▲나주배빠빠가또 ▲쿠키슈 3종(흑임자·블루베리·옥수수) ▲무안참외파블로바 ▲무등산옥각바위무스 케이크 ▲피치우통베리 등 총 5종이다. 나주 배, 무안 참외를 비롯해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특산물을

디저트에 접목하고 '무등산옥각바위'를 형상화하는 등 지역의 상징성 살린 것이 특징이다.

시식회에는 분야별 전문가, 블로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평가단으로 참석해 디저트 개발 과정과 메뉴 설명을 듣고 직접 맛보며 상품성을 점검했다. '청년 로컬 디저트 메뉴개발 클래스'는 카페·디저트 분야 초기 및 예비 창업자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청년 창업자들은 로컬 디저트 메뉴 개발 교육과 실습, 1:1 컨설팅 등을 거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지난달 말 최종 메뉴를 완성했다.

향후 복구는 이번 시식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소비자의 의견을 참여

자들이 메뉴 개선과 창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수정 복구청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지역의 특색을 더하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펼치고 창업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메뉴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구는 완성된 메뉴가 실제 창업과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힘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정관 기자

서구, 가족과 '평등한 일상' 30일 실천

30일간 가사·돌봄 함께하는 가족 만들기

서구, '30일 챌린지' 참여 30가정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가족 모두가 가사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평등한 일상 만들기 위해 나섰다. 서구는 가족 구성원들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가사와 돌봄의 가치를 돌아보고 함께 실천하는 '30일 챌린지'에 참여할 30가정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챌린지는 가족의 일이 특정 구성원의 몫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서구는 10월 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챌린지 참여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약속식'을 개최한다. 참여자들은 살림과 생활관리, 자녀 돌봄

과 교육 등 일상 속 100가지 활동을 담은 '함께카드'를 통해 각 가정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이후 함께 실천할 약속을 정해 30일간의 행동으로 옮길 예정이다.

참여가정들은 챌린지 전용 앱의 '우리집 함께지수'를 통해 30일 동안 가사·돌봄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주간 미션과 온라인 중간점검 등도 진행한다.

서구는 참여가정에 함께카드 100장과 노트, 체크표와 스티커, 주간미션 키트 등을 제공하고 챌린지를 완주한 가정에는 사전·사후 진단 결과와 담은 '우리 가족 변화 리포트'와 완주 인증서를 전달한다. 모집 대상

은 서구에 거주하면서 초·중·고 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또는 자녀 없이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이며 참여 희망자는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평등은 거창한 구호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일상을 함께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보이지 않던 서로의 수고를 발견하고 가사와 돌봄을 '우리의 일'로 만들어가는 30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가정과 골목상권 등 주민의 일상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 속 양성평등 함께 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는 소상공인과 함께 '함께가게 실천서약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챌린지

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가사와 돌봄 분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참여가정이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미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공유하며 평소 놓치기 쉬웠던 가사와 돌봄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또한 챌린지 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며 변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참여가정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챌린지 참여를 계기로 가족 간 대화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착한도시 서구

2026 함께가정 참여가정 모집

우리 집의 역할, 함께 다시 정해볼까요?

100가지 함께카드로 30가정 · 30일 챌린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함께 요리, 함께 청소, 함께 돌봄, 함께 계획, 함께 살리기, 함께 이동, 함께 배움, 함께 정리

모집대상: 서구 거주 30가정 (초·중·고 이하 자녀 양육가정 · 자녀 없는 2인 가구)

30일 실천: 2026. 10. 8. ~ 11. 6.

함께 약속식: 2026. 10. 8. (목) 19:00 서구청 2층 들불홀

참여가정 지원: 시작: 함께카드 100장 · 함께노트, 실천: 주간 미션키트, 완료: 완주인증서 · 우리 가족 변화리포트

30일 주요활동: 매일 '함께카드' 역할 실천, 생활고 체크표 기록, 주간미션 4회(미션키트), 온라인 중간점검 1회

신청 QR

전남광주통합특례시서구

2026함께가정 참여가정 모집 포스터

/광주 서구청 제공

초록빛 장성에서 만나는 힐링 심포

여행은
장성으로

성장장성
Jangseong

축령산

남창계곡

장성호 수변길